

唐宗海의 醫易思想에 關한 研究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金基郁·朴炫局

I. 序論	57
II. 本論	59
1. 宇宙本體論의 認識	59
2. 九數爲河圖十數爲洛書	59
3. 人身八卦와 八月養胎說	60
4. '男子八歲'와 '女子七歲'의 象數學的인 해석	60
5. 先天八卦와 乾坤六子論	61
6. 坎離兩卦와 心腎關係를 중시	62
7. 十二地支에 관한 시간·공간적인 해석	62
8. 易의 先天後天論	63
9. 八卦方位와 地域性	64
10. 重卦	64
11. 辟卦	65
12. 月候卦	65
13. 交易變易不易	66
14. 互卦	66
15. 爻位와 人身八卦	67
16. 序卦	68
17. 雜卦	68
III. 結論	69
參考文獻	69

唐宗海의 醫易思想에 關한 研究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金基郁·朴炫局

ABSTRACT

The study of Tang Zong Hai's Medical-change thought

1. In the recognition of cosmos true form, It is compared to the Boundless(無極), the Great Absolute(太極), Yin and Yang(兩儀) through the fertilization process of spermatozoon and ovum. 2. It is explained that principle of unchange through the Form and Action(體用) relation of the outer appearances and Number(象數) with matching the number of nine and ten to HaDoo(河圖) and RakSye(洛書). 3. Eighth divinations(八卦) being compared to the human body, Care preservation of pregnancy(養胎) is explained that head forms firstly(Gun-1 乾一), secondly lung(Tae-E 兌二), heart(E-Sam 離三), liver(Jin-Sa 震四), gall bladder(Son-Oo 巽五), kidney(Gam-Yuk 坎六), intestines and stomach(Gan-Chill 艮七), lastly flesh forms(Gon-Pal 坤八). 4. It is explained that process of physiological change of 《Nei Ching: The Natural Truth in Ancient Times》(內經·上古天真論) by matching boy at the age of 8 to Gan-divination(艮卦), and girl at the age of 7 to Tae-divination(兌卦). 5. The theory of six sons from Gun-Gon(乾坤六子論) is explained by relation of Apriority Eight-divination(先天八卦) obedience and disobedience-left and right. 6. It is explained that form of the human-body and the relationship of the Heart - the Kidney through the Gam(坎)·Li(離) - divination 7. The effort of interpreting time and space of the Twelve Horary signs is explained by season, direction, Five elements(五行), rise and decline, the Three Sum(三合), the Six Sum(六合), the six crash(六衝)'s relation. 8. the process of change from apriority(先天) to postery(後天) in the book of Changes(周易) is explained by comparing to the phenomenum of nature and the human body. 9. The Energy Satus(氣位) are different from the direction of Eight-divination(八卦) and the properties of the good or bad of herb-drugs are different from the place of production. 10. The rightness of realizing the Overlapping-divinations(重卦) are compared to the phenomenum of nature through the Divination Virture(卦德). 11. The dependence-relations of The Twelve Meridians(十二經脈) are explained by-matching January with liver meridian, February with gall bladder meridian, march with heart pericardium meridian, April with small intestine meridian, August with lung spleen meridian, july with stomach meridian, August with lung meridian,

September with large intestine meridian, October with urinary bladder meridian, November with kidney meridian, December with triple energizer meridian through The Twelve Byuk-divination(十二辟卦). 12. The process of menstruation cycle is explained by The Month symbolizing-divination(月候卦). 13. Through The Trade(交易) prove the reason of feverish symptoms to use feverish Drug, chill symptoms to use chill drug of prescription and Heart-Kidneys Consensus(心腎相交) and through The Change(變易), prove the chill and feverish consensus of forechill after feverish, fore feverish after chill and through The Non-Change(不易)explain the reason of chill symptoms to use feverish drug, feverish symptoms to use chill drug of prescription. 14. Ho-divination(互卦)applicate Jxa Sa(佐使) herb drug match of Kun Sin Jwa Sa() theory. 15. According to the Hyo-position(爻位) match the ages, body form and drug by matching Eeight-divination(八卦) to the human body form and function in medicine and the book of Changes(周易) application emphasize the human body Eeight-divination(人身八卦). 16. Throgh the Order-divination(序卦) explain the rightness of Divination Image(卦象)arrangement and all things take shape by cosmo-energy conseusus(宇宙氣交). 17. Throgh the Mixing-divination(雜卦) supply the vacancy of medicine and the book of Changes(周易) relationship in the foreword explian the human energy movements, sleep, vomitting, the energy arrival (遠氣), heart pericardium(心包), lung membrane(肺膜) etc.... Like the above sentence medicine and the book of Changes(周易) theory of scholar Tang on the viewpoint of eastern-the way Western appliance(東道西器) researching abyss of medicine impart to descendants, so I think that the achievement of medicine and the book of Changes(周易) study is very excellant and I expect that the study Korean Oriental Medicine(韓醫學)theory by means of medicine the book of Changes(周易) reference, will be accelarated.

I. 序論

周易理論은 《黃帝內經》의 一氣, 陰陽, 五行, 象數, 生化, 氣化, 運氣, 天門, 曆法 등 여러 방면에 걸쳐 的학적인 이론 운용에 根幹을 두고 있으며¹⁾, 張仲景의 《傷寒雜病論》에서 《周易》의 象數가 六經의 醫理體系의 特征적으로 수용되었^고²⁾³⁾⁴⁾, 隋代 楊上善의 《黃帝內經太素》의 注解

- 1) 黃自元, 《中國易學與周易原理》,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89, p7
- 2) 楊力, 《周易與中醫學》,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89,

에 있어 象數를 인용하였^고⁵⁾, 唐代 孫思邈은 “不知易, 不足以言太醫...且以醫有內經”라 하였으며⁶⁾, 王冰은 《重廣補註黃帝內經》에서 易學을 다양하게 응용하여 注文을 달았다⁷⁾.

宋代는 新儒學派의 영향으로 동양 의학에서는

pp58-64

- 3) 鄒學熾 외1人, 《中國醫易學》, 四川科學技術出版社, 1988, pp318-322
- 4) 黃壽祺 외1人, 《周易研究論文集》第4輯, 北京師範大學出版社, 1990, pp497-496
- 5) 前掲書: 《中國醫易學與周易原理》, p7
- 6) 張介賓, 《類經附翼》〈醫易篇〉, 大星文化社, 1986, p240
- 7) 前掲書: 《中國醫易學與周易原理》, p7

運氣學說이 성행되어⁸⁾ 宋人의 附托書인 《玄珠密語》와 劉溫舒의 《素問入式運氣論奧》 등이 저작되었다.

金元代 劉完素는 《素問玄機原病式自序》에 “易教體乎, 五行八卦. 儒教存乎, 三綱五常. 醫教要乎, 五運六氣. 其道一.”⁹⁾¹⁰⁾이라 하였고, 李杲는 《藥類法象》가운데 易理를 藥性에 융합시켰다¹¹⁾. 朱震亨은 《格致餘論》에서 “惟人之生, 與天地參. 坤道成女, 乾道成男.”¹²⁾이라 하였고, 주씨의 “相火爲元氣之賊”의 이론은 周敦頤의 “中正仁義而主靜”과 朱熹의 “使道心常, 爲一體之寶”¹³⁾의 節制論의 영향을 받았다.

明代에 있어서 李樞는 《醫學入門》에서 “學易以後, 可以言醫”¹⁴⁾이라 하였으며, 李時珍은 《瀕湖脈學》에서 脈象을 卦象에 비유하였고 《本草綱目》에서는 天地之數와 陰陽之理로 藥性, 氣味, 生産의 이치를 밝혔다¹⁵⁾. 孫一奎는 《醫旨緒餘》에서 命門을 太極에서 陰陽으로 暢發하는 ‘動氣命門’¹⁶⁾說을 제창하였고, 王肯堂은 《證治准繩》에서 ‘八廓應乎八卦’의 眼部經絡과 臟腑를 連繫¹⁷⁾하였고, 趙獻可는 《醫貫》에서 太極으로써 臟腑를 會通하는 원리를 “坎”卦에 비유하여, ‘腎間命門’¹⁸⁾說을 창안하였다. 또한 張介賓은 《類經附翼》의 《醫易》一卷을 저술하여 “易者易也, 陰陽動靜之妙,

醫者意也. …醫易同源…可以醫而不知易乎”¹⁹⁾의 ‘醫易同源’觀을 밝혔으며, 李中梓는 《醫宗必讀》에서 ‘既濟’‘未濟’의 兩卦로써 ‘心腎相交’와 ‘心腎不交’²⁰⁾의 生理病理概念을 밝혔으니, 이미 明代에서는 醫易理論이 성숙된 단계였다.

清代에 이르러 張志聰의 《素問集注》, 柯琴의 《傷寒來蘇集》, 高世拭의 《素問直解》, 王宏翰의 《醫學原始》, 陳修園의 《醫學三字經》, 章楠의 《醫門棒喝》, 邵同珍의 《醫易一理》 등 주역 이론에 근거하여 醫易書籍을 저술되었다²¹⁾. 이러한 韓醫學의 ‘醫通于易’ 사상은 唐宗海의 《醫易通說》에서 繼承 發展하여 一卷으로 집성되었다.

唐宗海(1862-1918)는 字가 容川이며, 四川 彭縣人으로 中西醫學을 연구하여 《血證論》, 《中西匯通醫經定義》, 《本草問答》, 《傷寒論淺註補正》, 《金樞要略淺註補正》, 《醫易通說》을撰²²⁾하였다. 唐氏 生涯의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阿片戰爭(1840)으로 인한 전통적인 專制王政의 붕괴(1911)²³⁾로 이어지는 근대화 과정의 혼돈 시기로, 이 때는 16~18세기의 유럽 과학문명이 기독교 선교사들에 의하여 서양의 과학지식이 중국으로 전래되어져²⁴⁾, 중국의 思潮變化는 서양화와 근대화를 지향하였다²⁵⁾.

따라서 서양 지식의 넓은 전파는 中醫界의 파란을 일으켰으며, 이러한 생각은 개방적인 醫家들에 있어서 中醫學의 단점을 버리고, 中西 醫學을 교류시키려는 탐색이 唐宗海張錫純章炳麟吳瑞甫

8) 洪元植, 《中國醫學史》, 東洋醫學研究院, 1984, pp137-138, pp146-147
 9) 劉完素, 《素問玄機原病式》, 人民衛生出版社, 1983, p1
 10) 何少初, 《古代名醫解周易》, 中國醫藥科技術出版社, 1991, pp83-84
 11) 上揭書: p94
 12) 朱震亨, 《格致餘論》,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5, p2
 13) 前揭書: 《中國醫學史》, p220
 14) 李樞, 《國譯編註醫學入門》卷之一, 南山堂, 1984, p13
 15) 前揭書: 《中國醫學與周易原理》, p8
 16) 前揭書: 《古代名醫解周易》, pp132-133
 17) 王肯堂, 《證治准繩》(雜病)第七冊,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4, pp447-448
 18) 趙獻可, 《醫貫》, 人民衛生出版社, 1982, p4

19) 前揭書: 《周易與中醫學》, p466
 20) 李中梓, 《醫宗必讀》,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7, pp7-8
 21) 前揭書: 《中國醫學與周易原理》, p9
 22) 前揭書: 《中國醫學史》, p339
 23) 金容雲 외1人, 《東洋의 科學과 思想》, 一志社, 1984, p203
 24) 上揭書: p143
 25) 李秀媛 외1人, 《近代中國에서의 中醫學 變遷史에 關한 研究》, 慶熙韓醫大論文集, 1988, p281

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中西匯通學派'가 형성되었다(26).

'匯通'이라는 명칭은 唐氏의 《中西匯通精義》로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27), 唐氏의 滙通사상은 '中體西用·東道西器和魂洋才'의 입장에서 "四海爲家, 五洲同軌"(28)와 "採風觀政, 棄短補長"(29)을 주장하여 西醫知識의 인용과 周易相參을 통한 노력은 귀중하고 이를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따라서 저자는 《醫易通說》과 《醫易詳解》에 나타난(30) 唐宗海의 독창적인 醫易思想과 學說을 연구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II. 本論

1. 宇宙本體論의 認識

周敦頤는 《太極圖說》에서 "無極而太極, 太極動而生陽, 動極而靜, 靜而生陰, 靜極復動一動一靜其根, 分陰分陽, 兩儀立焉. 陽動陰靜而生水火木金

土, 五氣分布, 四時行焉"이라(31) 하여, 우주의 본체인 태극으로부터 음양이 발생하고 그 작용으로 水火木金土로 형성되고 四時가 운행된다고 하였다. 邵雍은 《皇極經世書》에서 "太極既分, 兩儀立矣...陰陽生而分二儀, 二交而生四象, 四象交而八卦, 八卦交而生萬物焉"라(32) 하여 주씨와 같은 입장에서 본체론을 설명하고 있다.

당씨는 《太極節》에서 정자와 난자의 수정 과정을 "天地初生, 無從目覩, 惟將人物初生考驗之, 則太極之象可見. 有如鷄卵, 皆以爲太極一團之象, 然卵白象天, 卵黃象地, 黃爲陰, 白爲陽, 已分陰陽, 便是兩儀...是爲生人之太極"(33)이라 하여 생명 현상을 무극·태극·양에 비유하고 있으며, 동양 의학에서 胚의 발생과정을 수정체에서 분화하는 細胞期를 무극·태극·양의·사상·팔괘의 분화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34).

2. 九數爲河圖十數爲洛書

《周易·繫辭傳》에 이르길 "河出圖 洛出書 聖人則之"(35)라 하니, 河圖는 順序關係로 先天 伏羲八卦로 '十數의 象'이며, 내용은 一六二七三八四九五十으로 되어 있고 "天下之至積"(36)의 의미를 지닌다.

洛書는 對待關係로 後天 文王八卦로 金火交易으로 이루어진 '九數의 象'이며, 내용은 一三七九와 二四六八사이에 五數를 中宮에 包含하고 있으며 "天下之變"(37)의 의미를 지닌다.

26) 傅維康, 《中國醫學史》, 上海中醫學院出版, 1990, p454

27) 前掲書: 《近代中國에서의 中醫學 變遷史에 關한 研究》, p267

28) 俞慎初, 《中國醫學簡史》, 福建科學技術出版社, 1983, p412

29) 陳雲徵, 《中國歷代名醫圖傳》,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7, p259

30) 《醫易通說》은 唐宗海의 생전에는 책으로 나오지 못하고 宣統二年(1910)에 처음으로 문자로 찍혀 文倫書에서 《中西匯通醫書六種》이라는 이름으로 나왔다.

책 중에 있는 "男守潛校"라는 標題가 있는데, 守潛安語라는 다섯 가지 규칙과 모두 331자의 글자와 그림이 한 개 포함되어 있다. 이는 唐宗海의 아들인 唐祖鑑(字는 鏡民, 또는 守潛이라고도 함)이 校訂을 다시 하여 붙인 것이다. 1915년에는 上海千頃堂石印本에 冊名이 《醫易通說》이라는 上卷과 《醫易詳解》의 下卷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男守潛校"란 標題와 또한 守潛按語한 흔적이 없어 아들인 唐祖鑑이 교정을 보기 전의 원고라는 가능성이 있다. 이 二卷은 守潛按語를 빼고 283곳의 다른 글자가 있으며, 잘못 쓰여진 부분이 대체로 많다. 文倫本은 매우 드물지만 《全國中醫圖書聯合目錄》에서 나타나며, 四川省 도서관과 北京中醫學院 도서관에 판본이 있다.

31) 市川安司, 《程伊川哲學の研究》, 東京大學出版部, 1964, p399

32) 邵雍, 《皇極經世書·觀物外篇》, 大灣中華書局, 民國71年, p262

33) 唐宗海, 《醫易通說》, 中醫古籍出版社, 1989, p7

34) 前掲書: 《周易與中醫學》, pp102-104

35) 洪淳泌發行, 《備旨具解原本周易》, 朝鮮圖書株式公社編輯部, 1923, 《易本義圖傳》p3, 《繫辭上傳十章》卷22 p74

36) 上掲書: 《繫辭上傳七章》卷22, p41

"言天下之至積而不可惡也"

37) 上掲書: 《繫辭上九章》卷22, p61

당씨는 〈河圖節〉³⁸⁾에서 “此世所傳‘洛書’圖，惟宋劉牧以爲‘河圖’……陳希頌悉陰陽之理，其說是。《易》稱‘河圖’在前，‘洛書’在後，今考氣化，此數實應居前，故從劉牧改名‘河圖’，蓋理求其是而已，何必有成見哉。”이라 하였다.

또한 당씨는 〈先天八卦節〉에서 “……于是天旋地轉，以生晝夜，遂有‘河圖’之九數晝夜既生，積爲四時，遂有‘洛書’之十數”이라 하였고³⁹⁾，〈洛書節〉에서는 “《易經》生言‘河圖’主氣主生，自當以九數爲是；次言‘洛書’主運生成……是言‘洛書’十數……此圖以成數爲主，以五行爲用，自當在九數之後，是以從劉牧說，改名爲‘洛書’라 하였다⁴⁰⁾.”

당씨는 〈兩儀生四象 第九章〉에서 “……夫五上駕天一而下生地六，下駕地二而上生天七，右駕天三而左生地八，左地四而右生天九，此河圖 四十有五地數耳”이라 하였고⁴¹⁾，〈二儀得十成變化 第十一章〉에서는 “此乃五行生成數，本屬洛書，此畫之者，欲備天地五十五數也”라 하였다⁴²⁾43)44).

이와 같이 기존의 ‘十數爲河圖，九數爲洛書’이란 象數學說과 상반된 당씨의 새로운 견해인 ‘九數爲河圖，十數爲洛書’란 주장은 바로 ‘易者，易也’란 變易思想을 반영하고 있다.

3. 人身八卦와 八月養胎說

人身八卦의 相配를 《周易說卦》에는 “乾爲首，坤爲腹，震爲足，巽爲股，坎爲耳，離爲目，艮爲手，兌爲口”라⁴⁵⁾ 하였고，唐氏는 〈人身八卦節〉에서 “乾：(頭，鼻)，坤：(腹，腹中有綱)，震：(命門，魂氣)，

巽：(肝，筋)，坎：(腎水，耳)，離：(心火，眼精)，艮：(胃，發陽)，兌：(肺，口)”로⁴⁶⁾ 비유하여 八卦와 人體外形과 기능에 서로 배치하고 있다.

‘逐月養胎說’은 徐之才가 창안하였다고 하나 소실되었고，孫思邈의 《備急千金要方》에 〈徐之才逐月養胎方〉에서 胎形과 逐月分經에 관한 기제가 있다⁴⁷⁾.

당씨는 〈先天八卦節〉에서 八卦를 取像하여 人體胚胎의 형성 과정을 “推衍八卦之序而知人之初胎在母腹中，一月(乾)：一點元陽之氣，有氣即有液，二月(兌)：氣又化液，主津液，三月(離)：氣澤化合爲熱，四月(震)：振振而動，呼吸象風氣，五月(巽)：子隱母氣有呼吸，六月(坎)：胎水始盛，七月(艮)：子之腸胃已具，八月(坤)：肌肉皆成，形體俱全”⁴⁸⁾이라 추측하고，“先生頭(乾一)；次生肺(兌二)；次生心(離三)；次生肝(震四)；次生膽(巽五)；次生腎(坎六)；次生腸胃(艮七)；次生肌肉(坤八)”⁴⁹⁾로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十月養胎說’은 후대 張介賓⁵⁰⁾，陳修園⁵¹⁾，王清任⁵²⁾，馬云台，陳良甫⁵³⁾ 등의 비판과 논박을 면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分經養胎說’은 妊婦의 保養과 胎前病의 연구 그리고 胎兒疾患의 예방과 치료에 연구할 가치가 있다.

4. ‘男子八歲’와 ‘女子七歲’의 象數學의인 해석 《素問上古天真論》에서 男女의 생리적인 변

“非天下之至變，其塾能與於此”

38) 前揭書：《醫易通說》，p18

39) 上揭書：p17

40) 上揭書：p23

41) 嚴靈峯編輯，《無求備齊易經集成》〈易數鉤隱圖〉，成文出版社公社印行，民國 65年，p18

42) 上揭書 p22

43) 上揭書 p21

44) 劉牧，《易數鉤隱圖》，上海古籍出版社，1989，p8

45) 前揭書：《備旨具解原本周易》說卦8章，p17

46) 前揭書：《醫易通說》，pp60-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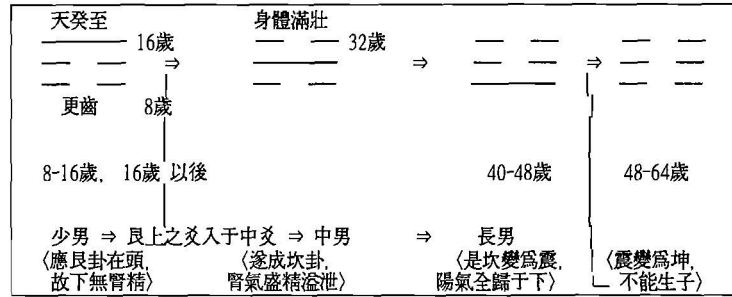
47) 孫思邈，《備急千金要方》，大星文化社，1989，pp21-24

“一月은 始胚로 足厥陰脈養하고，二月은 始膏로 足少陽脈養하고，三月은 始胎로 手心主脈養하고，四月은 成血脈하며 手少陽脈養하고，五月은 成其氣하며 足太陰脈養하고，六月은 成其筋하며 足陽明脈養하고，七月은 成其骨하며 手太陰脈養하고，八月은 成膚革하며 手陽明脈養하고，九月은 成皮毛하며 足少陰脈養하고，十月은 五臟俱備 六腑齊通 納天地氣於丹田 關節人神皆備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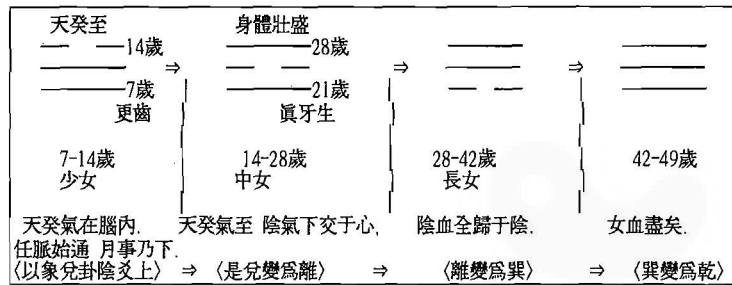
48) 前揭書：《醫易通說》，p12

49) 上揭書：p12

50) 張介賓，《張氏類經》卷十七，成輔社，1982，p550



【도표1】 남성 생리의 변화



【도표2】 여성 생리의 변화

화 과정을 少陽數인 七과 少陰數인 八로써 논술하고 있다⁵⁴⁾. 王冰은 女子가 少陰之氣이기에 少陽之數를 만나야 陰陽之氣가 和하여 形이 이루어지며, 男子는 少陽之氣이기에 少陰之數를 만나야 숨이 된다고⁵⁵⁾ 언급하였다.

당씨는 《六子節》에서 남자는 河圖八數에 起하여 艮卦에 相配되며⁵⁶⁾ 57) 58), 여자는 河圖七數에 起하여 兌卦에 相배됨으로 해석하니⁵⁹⁾ 60),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도표1】 【도표2】 과 같다⁶¹⁾.

당씨는 男女天癸의 道路가 같지 않아 여자는 離卦에 남자는 坎卦에 배치하였고⁶²⁾, 七損八益에 근거하여 老衰가 시작됨을 震卦의 長男과 巽卦의 長女에 相配하였다⁶³⁾.

5. 先天八卦와 乾坤六子論

先天後天에 관한 기제는 《周易乾卦文言傳》의 “先天而天不違，後天而奉天時”⁶⁴⁾와 《周易說卦傳》⁶⁵⁾ 등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說卦傳》에서 “天

54) 楊維傑, 《黃帝內經譯解》, 成輔社, 1980, pp4-7

55) 王冰, 《黃帝內經素問》, 四部備要, p21

56) 前揭書: 《醫易通說》, p64

“艮在河圖配八數, 故少男之數起于八, 一不能生子矣.”

57) 姜鎮春 외2人, 《註釋黃帝內經素問》卷一, 1981, 서울, pp7-9

58) 前揭書: 《古代名醫解周易》, p114

59) 前揭書: 《醫易通說》, p64

“兌在河圖七數, 故女子之數起于七, 一血盡矣.”

60) 前揭書: 《古代名醫解周易》, p114

61) 前揭書: 《註釋黃帝內經素問》卷一, pp5-7

51) 陳修園, 《女科要旨》, 福建科學技術出版社, 1982, p49

52) 王清任, 《醫林改錯》, 臺聯國風出版社, 民國64年, p62

“兒在母腹, 全賴母血而成, 一言可了. 何必圖取虛名, 故作欺人之論”

53) 上揭書 p71

54) 楊維傑, 《黃帝內經譯解》, 成輔社, 1980, pp4-7

55) 王冰, 《黃帝內經素問》, 四部備要, p21

56) 前揭書: 《醫易通說》, p64

“艮在河圖配八數, 故少男之數起于八, 一不能生子矣.”

57) 姜鎮春 외2人, 《註釋黃帝內經素問》卷一, 1981, 서울, pp7-9

58) 前揭書: 《古代名醫解周易》, p114

地定位, 山澤通氣, 雷風相薄, 水火不相射, 八卦相錯. 數往者順, 知來者逆, 是故易逆數也.”⁶⁶⁾라 하였다.

당씨는 〈先天八卦節〉에서 先天八卦數로써 順逆關係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⁶⁷⁾. 즉 順은 主生左居로 乾 兌 離 震에 해당하며, 逆은 主成右居로 巽 艮 坎 坤에 해당한다⁶⁸⁾.

後天八卦位의 당위성은 《周易乾卦文言傳》⁶⁹⁾에서 나타나는데, 당씨의 ‘六子論’을 살펴보면 그는 〈六子節〉에서 “六子之說, 不過以陰陽言, 非有形之男女也, 然禽獸人物, 凡有血氣者, 皆應卦氣而各有男女”라 하여 《素問上古天真論》의 女子七歲와 男子八歲의 관계로 논술하고 있다⁷⁰⁾.

‘乾坤六子論’⁷¹⁾에 있어 당씨는 “乾, 天也, 故稱乎父. 坤, 地也, 故稱乎母. 震一索⁷²⁾而得男, 故謂之長男. 巽一索而得女, 故謂之長女. 坎, 再索而得男, 故謂之中男. 離, 再索而得女, 故謂之中女. 艮, 三索而得男, 故謂之少男. 兌, 三索而得女, 故謂之少女”⁷³⁾⁷⁴⁾라 하였고, 후대에 ‘六子論’은 ‘參同契納甲’⁷⁵⁾⁷⁶⁾으로 발전되어 運氣學說과 연관을 지닌다.

65) 上揭書: 卷之二十四, p14

“說卦傳本義 朱子曰: 此去乾坤而傳言六子 以見神之所爲, 然其位序 亦用上章之說 未詳其義” “不言而言” 부분이 다.

66) 上揭書: 卷之二十四, pp7-8

67) 前揭書: 《醫易通說》, p11, p13, p15

68) 上揭書: p15

69) 前揭書: 《備旨具解原本周易》 卷之一, p38

“...同聲相應, 同氣相求, 水流濕, 火就燥, 雲從龍, 風從虎, 聖人作而萬物覩, 本乎天者親上, 本乎地者親下, 則各從其類也.”

70) 上揭書: p63

71) 曹志濤 외3人, 《六十四卦與養生》, 山西人民出版社, 1990, pp33-41

72) 前揭書: 《醫易通說》, p15

당씨는 “索者, 求也, 取也”로 해석하고 있다.

73) 姜天華, 〈退溪學報〉 第5輯, 退溪學研究院, 1974, p176

74) 前揭書: 《醫易通說》, p15

75) 魏伯陽, 《周易參同契解》, 自由出版社, 民國68年, pp18-21

6. 坎離兩卦와 心腎關係를 중시

趙獻可는 命門을 《周易》의 “一陽陷于二陰之中”⁷⁷⁾이란 坎卦의 관점으로 해석하였다. 즉 “水氣潛行地中, 爲萬物受命根本”⁷⁸⁾이라 하여 坎卦는 水이고 水中에 陽이 있기에 化氣하여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으니, 명문이 ‘水中之火이며, 人身의 眞主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趙氏는 坎卦의 爻位에 따른 體用關係로 命門과 腎臟을 구분하였다⁷⁹⁾.

唐宗海는 《血證論陰陽水火氣血論》에서 “人之身, 不外陰陽, 而陰陽二字. 即是水火, 水火二字, 即是氣血. 水即氣化, 火即化血. 何以言水即化氣哉. ...蓋人身之氣, 生於臍下丹田氣海之中. 臍下者腎, 與膀胱水所歸宿之地也. ...又賴鼻間吸入天陽, 從肺管引心火. 下入於臍之下, 蒸其水使化爲氣. 如易之坎卦, 一陽生於水中, 而爲生氣之根.”⁸⁰⁾이라 하여 결국 인체는 水火 즉 氣血이 핵심이 되며 이는 바로 心腎을 바탕으로 하며 坎離의 卦象으로 설명하였다.

당씨는 《醫易通說後天八卦》에서도 “日者, 離之精. 水者, 坎之氣. 化生人物, 全賴水火. 蓋乾南坤北一交而變爲坎離. 所以後天功用全在水火, 人身心配離火, 腎配坎水”⁸¹⁾라 하여 인체의 형성은 坎離 兩卦에 바탕을 둔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人身八卦節〉에서도 坎離卦를 心腎關係에 배치하고, 水火不濟 때 발생하는 耳鳴遠視目閉多眠의 기전

76) 白雲飛, 《六爻學全書》, 東洋書籍, 1978, p114

77) 前揭書: 《備旨具解原本周易》 卷11, p. 12

78) 趙獻可, 《醫貫》 〈水火論〉,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2. p77

79) 上揭書: 《醫貫》 〈內經十二官論〉, p. 10

“命門在人身之中, 對臍附脊骨, 自上數下, 則爲十四椎. 自下數上, 則爲七椎. ...此處兩腎所寄, 左邊一腎, 屬陰水. 右邊一腎, 屬陽水. 各開一寸五分, 中間是命門所居之官, 卽太極圖中之白圈也. 其右旁一小白竅, 卽相火也. 其左旁之小黑竅, 卽天一之眞水也. 此一水一火, 俱屬無形之氣”

80) 唐宗海, 《血證論》, 力行書局有限公司, 民國73, p1

81) 前揭書: 《醫易通說》, p54

을 설명하였다⁸²⁾.

7. 十二地支에 관한 시간-공간적인 해석

十二地支는 順序(方位季節十二運星)와 合(六合三合)과 對待(六衝)의인 관계에 따라 時空的 의미를 내포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季節(時間的)五行과 方位(空間的)五行

十二地支는 順序上 配列에 있어서 방위와 계절적인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당씨는 〈地支節〉에서 “蓋以十二支分爲四方, 以配洛書, 十數者是也, 亥子丑 配北方一六水位, 主冬令……申酉戌 配南方四九金位, 主秋令⁸³⁾”이라 하며 河圖에 비유하고⁸⁴⁾ 十二支의 시간-공간적인 개념이 동시에 존재함을 나타내었다.

2) 五行의 盛衰

당씨는 〈地支節〉에서 “五行配十二支, 各有生壯死三支, 如木生于亥, 壯于卯, 死于未……生即長生, 壯稱帝旺, 死謂墓庫⁸⁵⁾⁸⁶⁾”라 하였는데, 이는 五行의 旺相死關係를 五行勢力의 時空的인 변화에 따라, 十二運星⁸⁷⁾(①長生 ②沐浴 ③冠帶 ④臨官 ⑤帝旺 ⑥衰 ⑦病 ⑧死 ⑨墓 ⑩絕 ⑪胎 ⑫養)의 성쇠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3) 六合三合

당씨는 〈地支節〉에서 “概分爲十二支, 譬如一樹……有對待之化氣焉. 有六合之義, 有三合之義焉⁸⁸⁾”이라 하여 “十二支分陰陽. 子與丑合, 寅與亥合, 卯與戌合, 辰與酉合, 巳與申合, 午與未合, 稱六合⁸⁹⁾”이라 논술하고 있다.

六合의 구성 원리는 日躔과 月建의 상호 관계에서 따라 정하여 진다⁹⁰⁾. 地支六合은 天干에 대하여 橫的인 合이며, 同緯度로써 太陽의 氣運이 上下로 같으니(經度上으로는 對待이며 밤낮은 반대) 기후는 같다⁹¹⁾.

唐氏는 〈地支節〉에서 三合에 關하여 “術數家以十二支配五行中之金, 木, 水, 火取生旺墓三者以合局, 謂之三合. 地支三合, 仍配洛書四方, 故皆以四正爲主, 而四隅之支, 只從四正以立局. 木生于亥, 壯于卯, 死于未, 故亥卯未會木局……寅午戌會火局……巳酉丑會金局……故申子辰會水局⁹²⁾”이라 하였는데, 地支三合의 구성 원리는 《素問六微之大論》에서 “甲子之歲……終於二十五刻, 所謂初六天地之數也. 丁卯歲……終於下水百刻, 所謂六二天之數也. ……常如是無已, 周而復始.”⁹³⁾라 하여 밝히고 있다. 이는 바로 12年 가운데 餘日이 1/4日 2/4日 3/4日 4/4日의 同類를 모아 子午卯酉의 水火木金에서 逆生한 것이다. 이처럼 三合과 六合은 모두 지구에서 관찰되어지는 日·月·星辰의 특수한 위치적인 배열에 따라 정하여진 세력관계에 의하여 흩어지고 모이는 十二地支의 공간적인 관련성을 나타낸 것이다.

4) 六衝

《玄珠密語天元定化經篇》에는 “夫天元六氣者, 卽是 厥陰 太陰 少陽 陽明 太陽 少陰爲子午六氣⁹⁴⁾ 三陰三陽과 十二支의 六衝⁹⁵⁾ 關係를 나타내고 있다.

82) 上揭書: p61

83) 前揭書: 《醫易通說》, p36

84) 上揭書: p36

85) 上揭書: p46

86) 許紹龍發行, 《梅花易數與例字》, 大台北出版社, 民國75年, p81

87) 上揭書: p5

88) 前揭書: 《醫易通說》, p36

89) 上揭書: p45

90) 上揭書: p41

“地支六合者, 日躔與月建相合也. 如正月建寅, 日月會于亥, 十月建亥, 日月會于寅, 故寅與亥合, 余仿此”

91) 前揭書: 《東洋哲學基礎理論》, p103

92) 前揭書: 《醫易通說》, p45

93) 前揭書: 《黃帝內經素問譯解》, pp522-523

94) 前揭書: 《素問六氣玄珠密語》 卷之三, p28643

95) 야마다 케이지, 《朱子の 自然學》, 풍나무, 1991, p241

당씨는 〈地支節〉에서 “子午之衝何以化熱? 答曰: 水中之陽發見于天與離與璃日相交, 則化爲熱”⁹⁶⁾이라 하였으니, 六衝은 子午衝丑未衝寅申衝卯酉衝辰戌衝巳亥衝⁹⁷⁾으로 對待관계가 성립되어 ‘衝氣以爲和’의 克습으로 통용되며, 地衝은 대대관계의 相反의 五行이 六氣의 성질로 克습하는 十二地支의 공간적인 상호 작용을 나타낸 것이다⁹⁸⁾.

8. 易의 先天後天論

河圖와 洛書에는 體用의 의미⁹⁹⁾를 담고 있는데, 八卦에도 先天伏羲八卦와 後天文王八卦¹⁰⁰⁾¹⁰¹⁾가 있다.

이렇게 先天에서 後天으로 변화되는 과정은 金火交易¹⁰²⁾으로 성립되며 ‘九五變圖說’로도 설명한다. 乾卦九五爻에서 先天後天論의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¹⁰³⁾, 이러한 운동을 去來法¹⁰⁴⁾이라 한다.

당씨는 이러한 先後天 변화 과정을 자연 현상¹⁰⁵⁾과 人身에 응용¹⁰⁶⁾하여 醫易關係를 이용하

여 〈後天八卦節〉에서 설명하고 있다.

9. 八卦方位와 地域性

당씨는 〈八卦方位節〉에서 八方에 따라 各各氣位가 다르고 產物 역시 성질이 다르다고 논술하였고, 또한 產地에 따른 藥性과 藥物의 良否를 언급¹⁰⁷⁾하고 있다.

그는 離南方은 熱藥, 坎北方은 寒藥, 震東方은 動藥, 兌西方은 靜藥으로 구분하였고¹⁰⁸⁾, 陳嘉謨는 《本草蒙筌》에서 약물의 지역성을 중시하여 ‘地勝藥靈’와 ‘地道藥材說’을 강조하였다¹⁰⁹⁾.

당씨는 《本草問答》에서 약성이 산지의 방위에 따라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산지의 특수한 지형과 기후의 영향을 받는 것이라 하였다¹¹⁰⁾. 즉 동일한 약물이라 할지라도 지역성과 지형 그리고 기후의 조화를 얻고 생산된 약물이 품질이 우수하다고 하였다¹¹¹⁾.

다만 八卦方位는 관찰자에 따라 상대적인 개념으로 인하여 바뀔 수 있기에, 卦象으로서 방위를 고정할 수 없음을 고려하여야 한다¹¹²⁾¹¹³⁾¹¹⁴⁾.

96) 前揭書: 《醫易通說》, p38

97) 上揭書: p45

98) 前揭書: 《東洋哲學基礎理論》 p59

“《老子道德經》 第35章 “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萬物負陰而包陽, 衝氣以爲和”

99) 金珍圭, 《亞山先生周易講義》 上卷, 1983, pp7-8

100) 韓圭性, 《易學原理講話》, 英文社, 禮紀4305, p181

101) 王紅旗, 《神奇的八卦六化與遊戲》, 南興出版社, 1988, p42

102) 韓東錫, 《宇宙變化的原理》, 杏林出版, 1985, p191, p193, pp191-201

103) 金赫濟校閱, 《周易》, 明文堂, 1986, p12

“子曰: 同聲相應, 同氣相求, 水流濕, 火就燥, 雲從龍, 風從虎, 聖人作而萬物覩, 本乎天者親上, 本乎地者親下, 則各從其類也.”

104) 前揭書: 《亞山先生周易講義》 上卷, p73

‘去來法’은 先天八卦에서 後天八卦의 변화 과정을 亞山先生이 명칭한 것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水流濕: 坎 → 坤方, 風從虎: 巽 → 兌方, 火就燥: 離 → 乾方, 聖人作: 震 → 離方
雲從龍: 艮 → 震方, 萬物覩: 兌 → 坎方, 親上: 乾 → 艮方, 親下: 坤 → 巽方

105) 前揭書: 《醫易通說》, pp50-54

“先天坎卦在西方, 變爲後天兌仍居西方, 於五行屬金. 于氣爲露澤草上露珠, 必生于日入之時—則結爲露, 可驗坎水, 變爲露澤之象—”

106) 上揭書: pp50-55

“先天艮卦, 變爲後天乾卦—在人身以腦爲乾, 以胃配艮. 西人言腦筋多系于胃, 中醫言胃絡上通于腦, 又人身之背亦配艮卦. 太陽經由背上腦頂, 是艮變爲乾之通路—”

107) 上揭書: pp56-58

“後天八卦, 分爲八方. 風氣既殊, 物產亦異, 皆隨卦氣爲區別也.”

108) 申信求, 《申氏本草學總論》, 齋文社, 1982, pp87-88

109) 前揭書: 傅維康, 《中國醫學史》, p293

110) 唐宗海, 《本草問答》, 力行書局有限公社, 民國73年, p4

“陽氣石生於泰山, 山谷爲雲母石之根—陽助陽之義而已矣.”

111) 上揭書: pp7-8

“黃芪, 或生漠中, 或生甘肅, 或生山西, 或生北口外—故黃芪以北口外產者爲佳”

112) 前揭書: 《醫易通說》, p56

“巽卦在東南分野, 當湖北, 江西, 廣東, 瓊州—”

10. 重卦

《周易》은 64卦로 구성되어 있으니 이를 大成卦라 한다. 大成卦는 八個의 小成卦가 錯綜하여 성립된 것으로, 64卦가 서로 중첩하여 구성되므로 '重卦'라 한다¹¹⁵⁾.

당씨는 〈重卦節〉에서 64卦의 大成卦를 重卦라 부르고, 천지 만물의 변화를 설명하기에는 小成卦로는 부족하므로 大成卦(重卦)가 이루어져야 한다고¹¹⁶⁾¹¹⁷⁾ 언급하고 있다.

《주역》에서는 上下가 같은 小成卦로 이루어진 八卦의 本體도¹¹⁸⁾ 三爻가 아닌 六爻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周易說卦》에서 “立天之道曰陰與陽, 立地之道曰柔與剛, 立人之道曰仁與義. 兼三才而兩之 故易六劃而成卦, 分陰分陽, 迭用柔剛, 故易六位而成章.”¹¹⁹⁾¹²⁰⁾이라 하였으니, 당씨 역시 重卦의 당위성과 자연 현상에 비유¹²¹⁾하여 이를 설명하고 있다.

11. 辟卦

辟卦를 '消息卦'·'月卦'·'候卦'라 지칭하며¹²²⁾, 당씨는 〈辟卦節〉에서 “十二辟卦起于京房, 以一年分配乾坤兩卦, 上半年爲陽屬乾卦, 下半年爲陰屬坤卦, 每一月又應一爻……”라 하여 冬至에서 一陽始生

하고 夏至에서 一陰始生하여, 12달에는 각각 하나의 卦象이 서로 배속함을 辟卦라 한다¹²³⁾¹²⁴⁾. 12달에 배속된 辟卦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子(十一月)復·丑(十二月)臨·寅(一月)泰·卯(二月)大壯·辰(三月)夬·巳(四月)乾·午(五月)姤·未(六月)遁·申(七月)否·酉(八月)觀·戌(九月)剝·亥(十月)坤卦 이다¹²⁵⁾¹²⁶⁾¹²⁷⁾.

당씨는 이러한 辟卦의 陰陽消長の 현상을 다양하게 자연 현상에 비유하고 있다¹²⁸⁾.

《內經陰陽別論篇》에는 “四經應四時, 十二從應十二月”¹²⁹⁾이라 하여 十二經脈의 從屬關係로 설명하니 正月은 肝經, 二月은 膽經, 三月은 心包經, 四月은 小腸經, 五月은 心經, 六月은 脾經, 七月은 胃經, 八月은 肺經, 九月은 大腸經, 十月은 膀胱經, 十一月은 腎經, 十二月은 三焦經에 상배¹³⁰⁾하였다.

기타 문헌에 나타나는 辟卦의 활용을 살펴보면, 계절에 따른 질병의 판단¹³¹⁾과 出生時 인체에 발생하는 변화¹³²⁾에 이를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12. 月候卦

당씨는 〈月候節〉에서 “每月以五日爲一候, 以一

113) 鄭燦, 《明道易經》, 信利印製有限公司, p29

“巽卦—中華有徐州, 江西, 福建, 外夷有泰山, 東海—”

114) 李章薰編纂, 《洪煙真訣》, 明文堂, 1973, p79

“巽方은 全羅道, 全羅道에서 巽方은 淳昌, 光陽, 谷城—”

115) 錢世明, 《周易卦爻辭通說》, 中國和平出版社, 1988, p8

116) 前揭書: 《醫易通說》 p62

“造火之氣機, 交加參雜. 生出事事物物, 是以錯綜變互成六十四卦—”

117) 金景芳 외1人, 《周易全解》, 吉林大學出版社, 1989, pp1-2

118) 乾·坤·坎·離·震·巽·艮·兌를 지칭함

119) 前揭書: 《醫易通說》, p62

120) 前揭書: 《備旨具解原本周易》 〈說卦1章〉, p5

121) 前揭書: 《醫易通說》 pp62-63

114) 李章薰編纂, 《洪煙真訣》, 明文堂, 1973, p79

“巽方은 全羅道, 全羅道에서 巽方은 淳昌, 光陽, 谷城—”

115) 錢世明, 《周易卦爻辭通說》, 中國和平出版社, 1988, p8

116) 前揭書: 《醫易通說》 p62

“造火之氣機, 交加參雜. 生出事事物物, 是以錯綜變互成六十四卦—”

117) 金景芳 외1人, 《周易全解》, 吉林大學出版社, 1989, pp1-2

118) 乾·坤·坎·離·震·巽·艮·兌를 지칭함

119) 前揭書: 《醫易通說》, p62

120) 前揭書: 《備旨具解原本周易》 〈說卦1章〉, p5

121) 前揭書: 《醫易通說》 pp62-63

122) 黃壽祺 외1人, 《周易譯註》, 上海古籍出版社, 1989, pp56-57

123) 前揭書: 《醫易通說》, p65

124) 黃壽祺 외1人, 《周易研究論文集》 第2輯, 北京師範大學出版社, 1990, pp255-258

候應一卦，除去坎卦，其餘六卦以應六候……初三至初八，明自下生，應震仰盂；初八至十四爲上弦，應兌上缺；十五月體全明，應乾卦純陽；十六至二十三，魄自下生，應巽下斷；二十三至二十八爲下弦，應艮履碗；三十月晦，應坤卦純陰¹³³⁾이라 하여 月候에 따른 月象의 變化를 배치되는 卦象을 月候卦라 한다.

《參同契》에서는 陰陽消長을 震兌乾은 陽息 陰消의 過程으로 巽艮坤은 陰息陽消의 過程을 나타내고 있다¹³⁴⁾¹³⁵⁾¹³⁶⁾¹³⁷⁾. 虞翻과 朱震은 月見月盈月消의 過程을 八卦에 天干을 代入하여 納甲圖로 표시하¹³⁸⁾. 이는 天文現象의 법칙에 관한 萌芽로 曆法과의 관련성이 있다¹³⁹⁾.

당씨는 이러한 月候의 變化를 人身에 있어 女性의 月經을 月信이라 지칭하였다. 이는 月에 따른 潮水의 現象과 같이 정하여진 기간이 있음을 비유한 것이다¹⁴⁰⁾.

13. 交易變易不易

周易에는 交易과 變易과 不易인 '三易'의 의미¹⁴¹⁾가 있으니¹⁴²⁾, 이는 주역 이론의 핵심이다.

《周易繫辭》에 “易窮則變，變則通，通則久矣.”¹⁴³⁾라 하였고, 《泰卦象》에는 “天地交而萬物通也.”¹⁴⁴⁾이라 하여 交感을 통한 交易의 사상을 내포하고 있다.

당씨는 《交易節》에서 “交易者，八卦相交而化成者也.”¹⁴⁵⁾라 하였으니, 交易이란 內卦外卦가 相交하여 이루어지는 ‘錯綜卦’를 뜻하며, 錯綜卦¹⁴⁶⁾는 64卦 가운데 기본 8卦를¹⁴⁷⁾ 제외한 56卦가 각각 錯綜의 關係를 이루고 있음¹⁴⁸⁾ 말한다. 당씨는 이러한 착종의 關係에 있는 卦 가운데 否와 泰, 既濟와 未濟, 咸과 損의 卦를 예를 들어 인체의 생리·병리·방약에 운용하여 설명하고 있다¹⁴⁹⁾.

또한 《交易節》에서 “人之初胎，稟父母之氣，乾男本在上，坤女本在下，及其交媾成胎，則乾陽下交，坤陰上交，合于泰卦……是以水火既濟，无病也.”¹⁵⁰⁾라 乾坤坎離의 卦象을 통한 交感 즉 交易의 원리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變易節》에서 “陽變陰，陰變陽”¹⁵¹⁾이라 하여 變易을 설명하고 離變坎，兌澤變艮山이라 하여

133) 前揭書：《醫易通說》，p68

134) 潘啓明，〈周易參同契通析〉，上海藩譯出版公司，1989，p28

“三日出爲爽，震受庚西方，八日兌受丁，上弦平如繩，十五乾體就，盛滿甲東方，七八道已訖，屈折低下降，一繼體復生龍，壬癸配甲乙。”

135) 前揭書：《明道易經》〈渾天甲子象納甲根宗圖〉，pp96-97

136) 前揭書：《退溪學報四輯原卦畫篇》，pp99-113

137) 前揭書：《周易與中醫學》，pp168-169

138) 黃壽祺 외1人，〈周易研究論文集(第三輯)〉，北京師範大學出版社，1990，p389

“虞曰：謂日月懸天，成八卦象，三日暮震象，月出庚……又曰：消之入坤，絕藏于癸”

“朱說：晦日朔旦，則坎象水流戊，日中則離 離象火就己，……”

139) 上揭書：p389

140) 前揭書：《醫易通說》，p68

141) 前揭書：《周易與中醫學》，p470

“乾鑿度曰：易者，易也，變易也，不易也。”

142) 前揭書：《周易研究論文集》第4輯，pp108-110

“《乾鑿度》云：“《易》一名而含三義：所謂易也，變易也，不易也。”

143) 前揭書：《備旨具解原本周易》卷23，p9

144) 上揭書：卷5，p13

145) 前揭書：《醫易通說》，p69

146) 張春華，〈奇門易經〉，智揚出版社，民國75年，p25，p27

“錯者，陰與陽相對也一如乾錯坤，兌錯艮”

“綜字之義……或上或下，顛之倒之者也。一如巽即爲兌，艮即爲震”

147) 重天乾，重兌澤，重火離，重震雷，重風巽，重水坎，重山艮，重地坤은 기본 8卦이다.

148) 夫와 履；大有와 同人；大壯과 無妄；小畜과 姤；需와 訟；大畜과 遁；泰와 否；睽와 革……의 卦象을 의미한다.

149) 前揭書：《醫易通說》，pp69-71

“否者陰陽不通也，必天氣下降，地氣上騰，則天地交泰 萬物亨通……坎在人爲腎，艮由己身陰陽交泰，是以水火既濟，爲無病也。……”

150) 上揭書：p69

151) 上揭書：p71

내용을 보충 설명하였으니¹⁵²⁾, 變易은 全變卦의¹⁵³⁾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不易節>에서 “一定不易, 不可推移”라 하여 不易을 설명하였으니, 不易이란 不變卦의¹⁵⁴⁾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당씨는 交易變易不易의 이치를 병리와 치료 원칙에 활용하여¹⁵⁵⁾, “不易者 其體, 交易變易 其

王弼의 《易注》에서는 “無互體”論을 주장하였으나¹⁶⁰⁾, 이미 《左傳》에 “互卦”가 상용되었고 朱子도 互體를 廢할 수 없다고 하였다¹⁶¹⁾.

당씨는 이러한 互卦의 성질을 자연 현상에 비유하고¹⁶²⁾ 있으며, 用藥에 응용하여 君臣을 나눔에 卦의 正體로 하고 佐使가 있음을 互卦에 응용하여 麻黃湯¹⁶³⁾, 溫經湯¹⁶⁴⁾, 建中湯¹⁶⁵⁾, 腎氣

爻位 \ 配置	年齡	人身	藥物
上爻	晚年二十年	項-頭項	實
五爻		膈-胸項	葉
四爻	中年二十年	臍-膈	枝
三爻		小腹-臍	莖
二爻	弱冠二十年	膝-股	梗
初爻		足-膝	根

【도표3】 爻位에 따른 人身과 藥物의 相配 用¹⁵⁶⁾을 기본적인 사상으로 강조하였다.

14. 互卦

당씨는 <互卦節>에서 “二至四, 三至五, 兩體相互, 各成一卦, 先儒謂之互卦”¹⁵⁷⁾라 하였다. 즉 互卦란 初爻와 上爻를 除去하고 二三四爻와 三四五爻로써 各各의 小成卦를 다시 구성한 卦象¹⁵⁸⁾이다. 그러므로 互卦는 一卦 가운데 兩卦를 내포하고 있으니¹⁵⁹⁾, 二三四爻는 下卦를 이루어 ‘下互’라 하며 三四五爻는 上卦를 이루어 ‘上互’라 한다.

丸¹⁶⁶⁾등을 설명하였다. 또한 처방을 설정함에 本臟을 정한 다음에 互體를 兼求¹⁶⁷⁾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互體論은 丁茶山에 의하여 互體大互兼互倒互位伏牌合兩互 등으로 설명하며¹⁶⁸⁾, 兩互說에서 茶山은 “故无妄之象曰其匪正有眚, 謂兩互有眚也. 民志其有邪乎. 諸卦取兩互爲象, 盖以是也”이라 하여 互體論의 實像을 지적하고 있다¹⁶⁹⁾.

152) 上揭書: p71
 153) 乾變坤, 夫變剝, 大有變比, 大壯變觀, 小畜變豫...의 卦象을 의미한다.
 154) 前揭書: 《醫易通說》, p71
 “天地定位, 陰陽對待, 星迴斗轉, 寒往暑來皆一定不易”
 155) 上揭書: pp71-72
 “凡病冬月傷寒, 或變爲熱, 夏月傷暑, 或變爲寒, 受寒已久皆變爲鬱, 瘡痛潰漏, 皆變虛寒, 變易之理.”
 “醫家治方, 以寒治熱, 以熱治寒, 不易之法也. 熱因熱用, 寒因寒用, 是交易之法也.”
 156) 上揭書: p71
 157) 上揭書: p72
 158) 許紹龍, 《梅花易數與測字》, 大台北出版社, 民國75, p9
 159) 前揭書: 《醫易通說》, p72

160) 前揭書: 《周易譯註》, pp45-46
 161) 李乙浩, 《茶山學提要》, 大洋書籍, 1982, p234
 162) 前揭書: 《醫易通說》, p72
 “艮爲山, 中互坎, 有山必有水也. 坎爲水, 坎中互艮, 有水必有山也. 離爲火, 下互巽, 火發則風生也. 相互兌, 物有膏澤, 乃生火也.”
 163) 上揭書: p72
 “醫家有配合方藥, 當仿互體之義. 藥分君臣, 如卦之正體. 又有佐使, 如卦之互體, 仲景麻黃湯, 用桂枝達太陽, 杏仁利肺經, 而必兼甘草, 以調和其肝”
 164) 上揭書: p72
 165) 上揭書: p72
 166) 上揭書: p72
 167) 上揭書: p72
 168) 李乙浩, 《茶山學의 理解》, 玄岩社, 1979, p93
 169) 前揭書: 《茶山學提要》, p237

15. 爻位와 人身八卦

《周易·繫辭傳》에 이르길 “《易》曰 六爻相雜, 惟其時物; 其初難知, 其上易知: 二與四同功而: 三與五同功而異位¹⁷⁰⁾라 하였는데, 이러한 爻位¹⁷¹⁾에 관한 당시의 해석은 年齡人身藥物에 배치하여 藥性を 파악함에 있어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¹⁷²⁾. 이를 정리하면 【도표3】 과 같다¹⁷³⁾.

그 밖에 爻位에 관한 해석을 살펴보면, 年齡에 따른 處世에 관한 해석이 있고¹⁷⁴⁾, 또한 張景岳은 《類經》에서 坤卦에 人身을 配置하여 “初爻는 命門, 六二是 腎, 六三是 肝, 六四是 脾, 六五是 心, 上六은 肺¹⁷⁵⁾에 배합하고 있으니 이를 진단 방면에 응용할 수 있다¹⁷⁶⁾.

당씨는 《人身八卦節》에서 “乾(頭鼻); 坤(腹中油網); 震(命門魂氣); 巽(肝筋); 坎(腎水·耳); 離(心火·眼精); 肝(胃·發陽); 兌(肺胃)”라 하여 인체의 외형과 기능을 팔괘에 배합하고 당시 자신의 인위적인 구성이 아님을 밝혔다¹⁷⁷⁾.

16. 序卦

《序卦傳》은 孔子의 十翼¹⁷⁸⁾ 가운데 一篇으로

170) 前掲書: 《備員具解原本周易》 卷23, pp41-45

171) 前掲書: 《周易譯註》, pp41-42

172) 前掲書: 《醫易通說》, p73

“草木惟牛膝之根, 下行入土甚濬, 如卦之初爻. 惟牛膝下達足經, 木通亦下行一厚朴理中焦之氣, 枳角是樹之果, 是上第五爻. 故治胸中之氣.”

173) 上掲書: pp73-74

174) 前掲書: 《亞山先生周易講義》 上卷, p55

“初九: 潛龍勿用, 九二: 見龍 利見大人, 九三: 借若無咎, 九四: 或躍無咎, 九五: 飛龍 利見大人, 上九: 亢龍有悔”

175) 前掲書: 《類經圖翼》, p243

176) 金俊默 譯, 《易醫學的臨床療法》, 翰成社, 1986, p56

“上爻: 病位の 陰陽, 五爻: 病位の 四要, 四爻: 病位の 經絡, 三爻: 病證의 寒熱, 二爻: 病熱의 虛實, 初爻: 病因의 風水燥濕”에 관한 논술

177) 前掲書: 《醫易通說》, p60

“實吾 《醫易通說》之根源, 能將此章發明. 卽醫道思過半矣.”

64卦의 배열 순서의 당위성을 밝힌 것으로 卦象의 깊은 의미는 논술하지 않고 있으나¹⁷⁹⁾, 사물의 변화와 推衍의 기본 과정을 밝혀 上經의 30卦는 天道를 下經의 34卦는 人道를 밝힌 것이다¹⁸⁰⁾.

64卦의 배열은 《周易》 이전의 《連山易》과 《歸藏易》¹⁸¹⁾182)183)과 달리 乾卦로부터 시작이 되어 乾坤은 易의 門戶로 衆卦의 父母가 된다¹⁸⁴⁾.

당씨는 64卦 순서에 관하여 序卦에 따르며, 《序卦傳》의 卦象 배열의 당위성과 우주 氣交에 관한 만물의 생성과 변화를 논술하고 있다¹⁸⁵⁾.

17. 雜卦

《雜卦傳》은 孔子의 十翼(彖(上下)傳, 象(上下)傳, 繫辭(上下)傳, 文言傳, 序卦傳, 說卦傳, 雜卦傳)의 一傳이다. “雜”의 의미를 韓康伯은 “雜糅衆卦, 錯綜其義”라 하여 旁通과 錯綜의 뜻을 지닌다고 하였다¹⁸⁶⁾. 《雜卦傳》은 또한 앞에서 언급하지 못한 卦象을 보충하고 요약하고 있으며¹⁸⁷⁾, 兩卦의 특징을 분명하게 대비하여 배열하고 있다¹⁸⁸⁾.

178) 前掲書: 《周易譯註》, pp40-41

179) 金景芳 외1人, 《周易全解》, 吉林大學出版社, 1989, p551

“《序卦傳》의 精義, 前人多不了解—《序卦傳》本身의 有天地然後 萬物生焉. 乾坤其易之 蘊邪. 乾坤其易之 門邪.”

180) 劉平, 《易經圖解》, 文化藝術出版社, 1990, pp42-43

181) 前掲書: 《醫易通說》, p74

“《連山》始艮, 所以成始成終也; 《歸藏》始坤, 以天承之也.”

182) 前掲書: 《周易研究論文集》 第1集, p108

183) 前掲書: 《退溪學報》 第3輯, p81

184) 前掲書: 《周易參同契解》, p3

“乾坤者, 易之門戶, 衆卦之父母.”

185) 前掲書: 《醫易通說》, pp74-75

“《周易》首乾, 萬物皆本乎天地. 本天必親地, 故以坤配乾一陰一陽. 形相對待, 氣則循環, 人物皆于是秉氣, 故《繫辭》曰: 乾坤其易之門邪—《上經》多言天道, 故首乾坤: 《下經》多言人事, 故首咸恒.”

186) 前掲書: 《周易譯註》, pp661-662

187) 前掲書: 《周易全解》, p552

“《雜卦傳》縱文字表面上看, 未嘗不可以理解—《雜卦傳》也論述了, 六十四卦, 而其先後次序與 《序卦傳》不一詳”

188) 前掲書: 《周易譯註》, pp662-663

당씨도 《醫易通說》에서 雜卦 부분을 冊末에 두어 앞에서 논술한 醫易의 상관성을 다시 補入하고 있으니¹⁸⁹⁾,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水澤節卦¹⁹⁰⁾에 水澤中の 草木을, 風水渙卦¹⁹¹⁾에 芡實을, 山澤履卦¹⁹²⁾에 蜂蟻를, 地火明夷卦¹⁹³⁾에 人氣動靜關係로 睡眠을, 澤火革卦¹⁹⁴⁾에 口中吐出을, 雷地豫卦¹⁹⁵⁾에 逮氣를, 風澤中孚卦¹⁹⁶⁾에 包絡과 肺膜 그리고 建中湯에 取象하여 설명하였고, 浮萍草와 芡實의 차이점을 渙之震¹⁹⁷⁾의 ‘之卦’¹⁹⁸⁾에 비유하고 있다.

III. 結 論

唐宗海의 醫易思想에 關한 그의 독창적인 견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宇宙本體論認識에 있어서 精子·卵子の 수정 과정을 통하여 無極太極兩儀로 비유하고 있다.
2. 九數를 河圖에 十數를 洛書에 相配하여 象數의 體用關係를 통한 變易의 이치를 설명하고 있다.
3. 人身八卦로 人體外形에 비유하며, 先生頭(乾一), 次生肺(肺二), 次生心(離三), 次生肝(震四), 次生膽(巽五), 次生腎(坎六), 次生腸胃(艮七), 次生肌肉(坤八)로 養胎論을 설명하고 있다.

4. 《內經·上古天真論》의 생리적 변화 과정을 男子八歲를 艮卦에 女子七歲를 兌卦에 相配하여 설명하고 있다.

5. 先天八卦 左右 順逆關係를 ‘乾坤六子’說로 설명하고 있다.

6. 坎離卦를 통한 인체의 형성과 心腎 關係를 설명하고 있다.

7. 十二地支의 해석을 季節·方位·五行·盛衰·三合·六合·六衝 關係로 설명하고 있다.

8. 易의 先天에서 後天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자연 현상과 인체에 비유하고 있다.

9. 八卦方位와 氣位에 따라 藥物은 산지에 따라 藥性의 다름과 良否를 설명하고 있다.

10. 重卦成立의 당위성을 卦德을 통하여 자연 현상에 비유하고 있다.

11. 十二辟卦를 통하여 正月은 肝經, 二月은 膽經, 三月은 心包經, 四月은 小腸經, 五月은 心經, 六月은 脾經, 七月은 胃經, 八月은 肺經, 九月은 大腸經, 十月은 膀胱經, 十一月은 腎經, 十二月은 三焦經으로 相配하여 十二經脈從屬關係를 설명하고 있다.

12. 月候卦를 통하여 女性의 月經 변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13. 交易을 통하여 心腎相交와 治方의 熱因熱用·寒因寒用의 이치를 설명하고, 變易을 통하여 先寒後熱·先熱後寒의 寒熱相交 이치를 설명하였다. 또한 不易을 통하여 治方의 以寒治熱·以熱治寒의 이치를 설명하고 있다.

14. 互卦를 통하여 君臣左使說 가운데 左使之用藥配合에 응용하고 있다.

15. 爻位에 따른 年齡·身形·藥物을 相配하였으며, 八卦를 人體外形과 기능에 相配하여 醫易活用에 있어서 人身八卦를 중시하고 있다.

16. 序卦를 통하여 卦象配列의 당위성과 宇宙

189) 前掲書: 《醫易通說》, p76-77

“天地間有合于六十四卦者, 難盡言也. 約略論之如水澤爲節—知物各乘—氣化合成方, 與八卦之重爲六十四卦, 氣義一也.”

190) 上掲書: p76

191) 上掲書 p76

192) 上掲書: p76

193) 上掲書: p76

194) 上掲書: p77

195) 上掲書 p77

196) 上掲書 p77

197) 上掲書: p76

198) 李爾芝, 《周易與卦象》, 南開大學出版社, 1990, pp176-179

氣交에 의한 萬物化生을 설명하고 있다.

17) 雜卦를 통하여 前言에서 未盡한 醫易關係를 補入하고 人氣動靜睡眠嘔吐遺氣包絡과 肺膜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唐氏의 의학 이론은 東道西器의 입장에서 의학을 탐구하여 후세에 전하니, 醫易研究에 공헌한 공적은 실로 크다고 생각되며, 아울러 저자는 醫易相參을 통한 한의학 이론에 관한 연구가 지속되어지길 기대한다.

IV. 參考文獻

- 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東洋醫學研究院出版社, 1981年
- 2) 洪元植, 《中國醫學史》, 東洋醫學研究院, 1984年
- 3) 傅維康, 《中國醫學史》, 上海中醫學出版, 1990年
- 4) 申佶求, 《申氏本草學總論》, 壽文社, 1982年
- 5) 王冰, 《黃帝內經素問 四部備要》
- 6) 楊維傑編, 《黃帝內經素問解釋》, 成輔社, 1980年
- 7) 楊維傑編, 《黃帝內經靈樞解釋》, 成輔社, 1980年
- 8) 楊維傑編, 《黃帝內經素問》, 大星文化社, 1980年
- 9) 姜鎮春 외2人, 《註釋黃帝內經素問卷之一》, 서울, 1981年
- 10) 劉完素, 《素問玄機原病式》, 人民衛生出版社, 1983年
- 11) 朱震亨, 《格致餘論》,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5年
- 12) 張介賓, 《類經附翼醫易篇》, 大星文化社, 1986年
- 13) 張介賓, 《張氏類經》, 成輔社, 1982年
- 14)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大星文化社, 1989
- 15) 王肯堂, 《證治准繩》,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4
- 16) 李梴, 《國譯編註醫學入門》, 南山堂, 1981年
- 17) 趙獻可, 《醫貫》, 人民衛生出版社, 1982年
- 18) 李中梓, 《醫宗必讀》,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7年
- 19) 陳修園, 《女科要旨》, 福建科學技術出版社, 1982年
- 20) 王清任, 《醫林改錯》, 台聯國風出版社, 民國64年
- 21) 唐宗海, 《醫易通說》, 中醫古籍出版社, 1989年
- 22) 唐宗海, 《血證論》, 力行書局有限公社, 民國73年
- 23) 唐宗海, 《本草問答》, 力行書局有限公社, 民國73年
- 24) 洪淳泌發行, 《備旨具解原本周易》, 朝鮮圖書株式公社編輯部, 1923年
- 25) 金赫濟校閱, 《周易》, 明文堂, 1986年
- 26) 金珍圭, 《周易講義》, 亞山先生講論, 1983年
- 27) 李章薰, 《洪煙真訣》, 明文堂, 1973年
- 28) 韓圭性, 《易學原理講話》, 英文社, 檀紀4305年
- 29) 韓東錫, 《宇宙變化의 原理》, 杏林出版, 1985年
- 30) 야마다 케이지, 《朱子の 自然學》, 통나무, 1992年
- 31) 姜天奉, 《退溪學報第 3·4·5輯》, 退溪學研究院, 서울, 1974年

- 32) 李乙浩, 《茶山學의 理解》, 玄岩社, 1979年
- 33) 李乙浩, 《茶山學提要》, 大洋書籍, 1982年
- 34) 金俊默, 《易醫學的 臨床療法》, 翰成社, 1986年
- 35) 金容雲 외1人, 《東洋의 科學과 思想》, 一志社, 1984年
- 36) 白雲飛, 《六爻學全書》, 東洋書籍, 1978年
- 37) 揚力, 《周易與中醫學》,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89年
- 38) 鄒學熹 외1人, 《中國醫易學》, 四川科學技術出版社, 1988年
- 39) 俞慎初, 《中國醫學簡史》, 福建科學技術出版社, 1987年
- 40) 陳雲撤, 《中國歷代名醫圖傳》,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7年
- 41) 潘啓明, 《周易參同契通析》, 上海翻譯出版公司, 1989年
- 42) 黃壽祺 외1人, 《周易譯註》, 上海古籍出版社, 1989年
- 43) 李蘭芝, 《周易與卦象》, 南開大學出版社, 1990年
- 44) 劉平, 《易經圖解》, 文化藝術出版社, 1990年
- 45) 嚴靈峰編輯, 《無求備齊易經集成》, 成文出版社限公社印行, 民國65年
- 50) 魏伯陽, 《周易參同契解》, 自由出版社, 民國68年
- 51) 邵雍, 《皇極經世書》, 臺灣中華書局, 民國71年
- 52) 劉牧, 《易數鉤隱圖》, 上海古籍出版社, 1989年
- 53) 鄭燦, 《明道易經》, 信利印製有限公社
- 54) 張春華, 《奇門易經》, 智揚出版社, 民國75年
- 55) 錢世明, 《周易卦爻辭通說》, 中國和平出版社, 1988年
- 56) 曹志清 외3人, 《六十四卦與養生》, 山西人民出版社, 1990年
- 57) 何少初, 《古代名醫解周易》,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2年
- 58) 黃自元, 《中國醫學與周易原理》, 中國醫學科技出版社, 1989年
- 59) 許紹龍發行, 《梅花易數與測字》, 大台北出版社, 1986年
- 60) 王紅旗, 《神奇的八卦六化與遊戲》, 南奧出版社, 1988年
- 61) 金景芳 외1人, 《周易全解》, 吉林大學出版社, 1989年
- 62) 鄒學熹 외1人, 《中國醫易學》, 四川科學技術出版社, 1988年
- 63) 市川安司, 《程伊川哲學の研究》, 東京大學出版部, 1964年
- 64) 黃壽祺 외1人, 《周易研究論文集》 第1-2-3-4輯, 北京師範大學出版社, 1990年
- 65) 李秀玩 외1人, 《近代中國에서의 中醫學 變遷史에 關한 研究》, 慶熙韓醫大論文集, 1988年